

Society For Biomaterials(SFB) 2017 annual meeting & exposition 참관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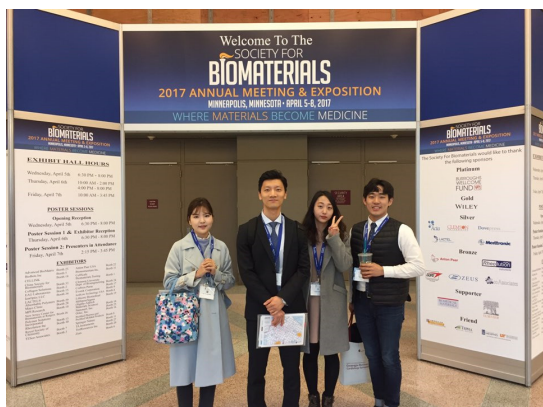
전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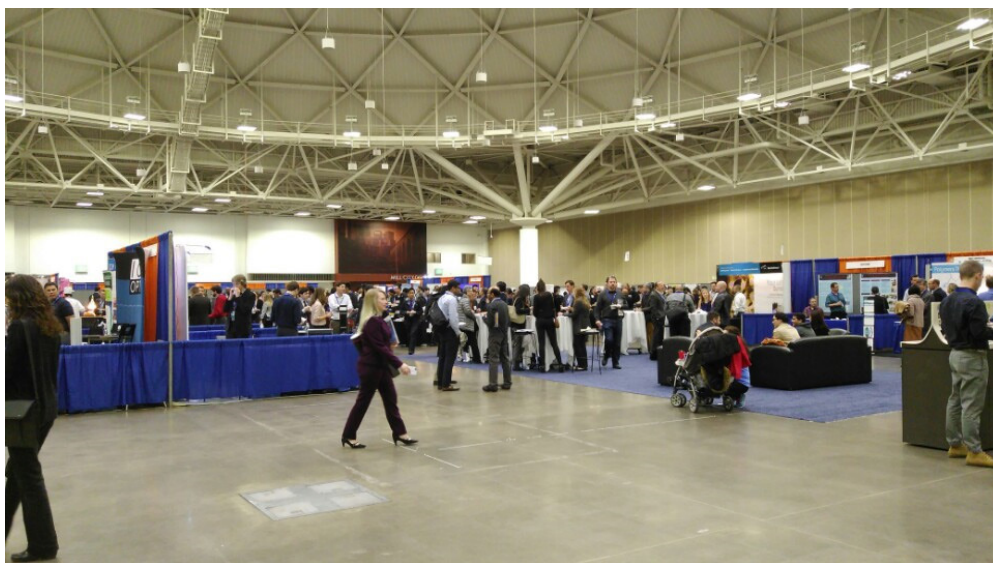
POSTECH 화학과
Jey1365@postech.ac.kr

2017년도 Society For Biomaterials 국제 학술대회는 4월 5일(수)부터 8일(금)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렸다. 이번에 참여한 미국 학회는 석박사 통합과정 중의 세 번째 해외 학회로 2년만의 미국 방문이라 더욱 설레었다.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니애폴리스는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최대의 도시로 바로 옆 도시인 세인트 폴과 합쳐 쌍둥이 도시, 트윈 시티라고 불린다. 겨울뿐만 아니라 봄까지도 특히 추운 도시라 그런지, 빌딩들 사이를 도로 상공에서 연결해주는 스카й웨이 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주요 상점들이 주로 2층에 모여있는 것이 신기했다. 스카й 웨이 덕분에 쌀쌀한 날씨에도 추위걱정 없이 숙소에서 학술 대회가 열린 미네소타 컨벤션 센터까지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처음의 기대와 달리, 우리 일행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꽤 자주 복잡한 스카이 웨이에서 길을 잃은 슬픈 기억이 있다.

올해 SFB 학술 대회의 주제는 “Where materials become medicine”으로, 재료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8가지 큰 트랙 및 64개의 소주제를 다루는 세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른 학회들과 달리 SFB 학술대회는 biomaterials와 tissue engineering에 초점을 맞춰 적용 분야 및 소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 주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 한 주제의 세션에 머무르지 않고, 매 발표마다 강연장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연구를 들을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학회 전체 기간 동안 매시간 한 세션씩 “Biomaterials Technology in Industry”라고 업계를 위주로 한 연구들이 소개되었는데, 단지 학술 논문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들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또한 매일 아침 2시간 가량 열리는 기조 연설의 경우에도 이른 아침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큰 강당을 절반이상 메우는 것을 보고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SFB 학술대회에서 나 역시 구두 발표의 기회를 얻어 “Cell and Tissue-Biomaterial Interactions” 트랙의 “Active Wound Dressings for Advanced Wound Care” 세션에서 “Bioinspired Collagen-targeting Adhesive Hydrogel for Scarless Skin Regeneration”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학술 행

사 기간 중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에 배정되어, 많은 청중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집중하여 듣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학회를 끝냈다. 학술 행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회 기간 중 3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포스터 발표장에 발표자로 참여한 인원이 적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포스터와 구두 발표 수상 모두 초록만으로 학회 시작 전 미리 평가하여 수상하였다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점이 포스터 발표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저조한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대학원생들에게 구두발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다른 국제 학술 대회들과 달리, 이번 SFB 학술 대회의 경우, 박사 후 연구원, 교수 또는 업계 발표자들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여,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희망하며 참관기를 마친다.